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리를 뛰어

여러분과 더불어 항상 같이 했으나 지난번에 바다 건너갔다 온 이래로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안에 만나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저쪽이든 바다 건너 이쪽이든 멀고 가까움은 없겠지만 모두들 한국보다는 달리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생활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우리는 그래도 좀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내가 아침 새벽에 나가면 남편은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고, 부부가 고대로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이런 가정이 많습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서(經書)를 가지고 풀이를 해서 강의를 해준다거나, 또는 백팔배를 한다든가 오백배를 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거나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느꼈고 또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2, 3년만 넘어가면 젊은이들이 더 바쁘게 뛰어야 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 게 이렇게 봅니다. 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네들도 그렇고 중년 퇴신 분들도 그렇고, 애들까지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남을 쫓아가기보다는 앞서서 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하겠습다. 또 지금 절에 다니다고 해서 안이하게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바로 행선(行禪)입니다. 그리고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마는 돌이 아닌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참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버리는 마음, 즉 말하자면 아집을 가진 마음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써 행이 나올 때는 항상 평등 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도반이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틀 다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구나, 어마어마한 공부구나.' 너무나 엄청나서 말로 할 수가 없으니 만큼,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절에 다니면서 이만한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광력이나 전력·자력·통신력이 충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천체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물질이 나왔습니까? 우린 자비의 칼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서 약의 조건, 선의 조건을 다 우리 마음으로써 잘 보고 율릴 건 율리고 내릴 건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손아귀에 다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서 없는 말이자마는 잘 쟁겨 들으시리라 믿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밝고 밝은 시대에 연구를 해낸 물건들이 모두 전장하는 데 쓰이고 모두 죽고 내가 차지하겠다는 마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생각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제재할 수 있고 타개할 수 있는,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하고 실현도 못해보고 맛도 모른다면 그 하나마저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타개를 못하고 조절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내가 벗어나서 내가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고 사회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내 집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집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내 집만 지키고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실험하고 체험해서 스스로 단단히 지키고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역사를 가져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이하고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가을에 낙엽

도 크나큰 거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또 요만한 덩어리를 아주 작게 해서 큰 덩어리를 반 쪼개낼 수 있을까? 어떡하면 음과 양을 한데 합친 탐지기나 망원경까지도 조절하고 컴퓨터까지도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모든 거를 다 알고 보고 행해서 미리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연구들을 서로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던 말입니다.

소리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재빨리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좀더 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연구를 빨리 해서 우리는 살고 상대는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좀 조절해서 안유하게 만들어 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주 필요합니다. 현재의 쌍방이 똑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죽으니까요. 양쪽이 다 죽지 않고 한쪽만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눈을 가둬놓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모두 보고 듣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가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재료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보는 거 듣는 거를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이 끊어오는 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참보해서 끊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구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을 총

내 몸을 내가 벗어나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그뿐이니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인 그 뜻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한테 운이라든 피워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대국에서는 연구들을 아주 열심히 해서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가서 큰 잡수함이나 비행기 같은 것을 파괴시킬 수 있을까? 어떡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조그맣게 새조각 두어 개 한데 뭉친 것처럼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만히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보이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죠? 물질로 볼 땐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마음공부에서는 '자력'이라고 합니다. 안 그렇까요? 내가 표현이 틀렸을까요? 난 여러분처럼 용어를 잘 알고 그러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떡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끌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도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고도 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도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느니라. 삼천大千세계 우주 모두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생(四生)의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쫓살 한 알갱이에 다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도 그 무엇이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림 · 최주현

참에 놓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 건데도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 리를 뛰는데 졸장부의 걸음걸이는 백 리를 뛰어도 한 걸음 뛴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으로써 벌어먹으려고 돈을 쫓아서 그냥 막 뛰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풀어도 다 붙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걸음을 뛰어도 뛰는 거지 몸뚱이로 그걸 쫓아서, 요만한 걸 보고 쫓아서 그냥 뛰면 몸뚱이 고달프죠. 병 생기죠. 집안에서도 가족들을 잘 못 지키죠? 신경질이 나니깐 또 화목하지 못하죠? 그러나 일일이 손해 아니니까? 일일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날 위해서지, 웬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하고 돌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 돌이 아닌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고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버리는 마음

습니까? 몸뚱이가 이 집 가서 한 쉼, 저 집 가서 한 쉼, 저기 가서 한 쉼 살면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게 내 부모라고 할까요? 어떤 게 또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내 형제라고 할까요? 부모는 누구냐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똑같은데 언제 저 부모를 내 부모라고 하고 언제 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 조상과 육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몸을 응신(應身)할 수 있는 이 몸을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의 은혜! 모든 것을 한데 합치면 어떤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의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친정어머니도 내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곤란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아니까요. 사람은 거의



그림 · 최주현



“ 마음으로 살면 보고 듣고 다 할 줄 알고 나 아님이 없으니깐 어디 가나 통과 통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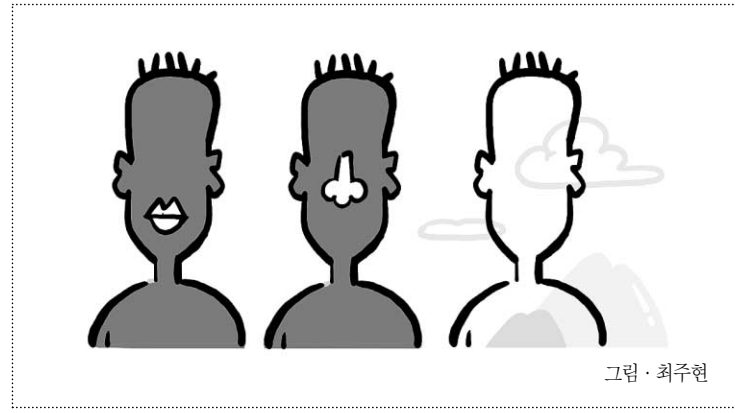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졌던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나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지킬 줄 아는 마음, 의리와 도의를 지키는 마음, 이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마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도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앞의 걸 해결하고 넘어가라

생각하고 내 몸값이 생각하고 내 부모값이 생각하고 내 형제값이 생각하고, 길에 지나가다가 죽으러 가는 소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소 하나도 '너의 육신이 소니까, 사람한테 그 고기를 먹고 너는 인간으로 환토를 해야지.' 하고서 그 소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탁 넣으면 소가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전부 알아버려요.

사람은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나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면서 그 의식을 다 떠났을 때는 그건 죽어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아야지 냄새나 말고 돌아다니면서 지지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옛날에 어느 사람이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떻게냐 욕심이 많으니 남의 것을 그냥 훔쳐 먹으려고만 해요.

오게 되면은 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 종류였다 해도 그냥 마음이 안이하게 되고 그 불치로서 자비한 마음을 닦아서 체인지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내가 예전에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괴질로 인해서 다 타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한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수십만 명을 다 건졌다고요.

남의 걸 훔쳐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종이나 선종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선(禪)에는 악종도 없고 선종도 없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계는 악종도 있고 선종도 있는데, 악종은 선종을 집어먹어요.

그래서 그 이웃 나라, 그림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웃 나라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막 그렇게 악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종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의리와 도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해요

요. 그리고는 타서 흠집이 났던 것도 자동적으로 꾸덕꾸덕해지고 낫고 말입니다. 그분이 또 곁으로는 전부 악을 발라주고 다니면서 다 건졌단 말입니다.

꽤나 하게끔 딱 천도를 해서 내놓으면 어디 가서 금방 태어나게 되죠. 임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큰 눈으로다가 눈물을 푼듯 흘러내려서, 그렇게 감사하게 들어 아니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Advertisement for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Joint Inflammation Self-Healing Pills) by Gungin Pharmaceutical. Includes text about efficacy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영험량' (Efficacy) by Gungin Pharmaceutical,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당뇨' (Diabetes) treatment by Gungin Pharmaceutical, highlighting '다온 밸런스' (Daon Balance) and its effects on blood sugar.

Advertisement for '승복법복안내' (Sungbok Beopbok Guide) by Gungin Pharmaceutical, listing various clothing items and their prices.